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의 학습량 분석 연구*

송현정**

〈 차 례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국어과 학습량의 실태 분석
 - 1. 실태 조사의 틀
 - 2.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III.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내용 분석
 - 1. 내용 분석의 기준
 - 2. 내용 분석의 결과
- IV. 국어과 학습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 V. 마무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적·사회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제로 연구자가 수행한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술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전국에 있는 국어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학습량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송현정, 2004 참조)

<표 1>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 응답 결과

	학습량	난이도	타당성	위계성	기타	계
초등교사	346(61.7)	118(21.0)	52(9.3)	30(5.3)	15(2.7)	561(100.0)
중등교사	217(67.8)	33(10.3)	29(9.1)	34(10.6)	7(2.2)	320(100.0)
고등교사	193(60.5)	42(13.2)	47(14.7)	26(8.2)	11(3.4)	319(100.0)
계	756(63.0)	193(16.1)	128(10.7)	90(7.5)	33(2.8)	1,200(100.0)

위의 응답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조사 대상 561명 중 346명인 61.7%, 중학교는 320명 중 217명인 67.8%, 고등학교는 319명 중 193명인 60.5%가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학습량이라고 응답하여, 초·중·고 교사 모두 학습량의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에 대해서 학습량이 많다는 비판이 과거의 교육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이 되는 원인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등 '교육 내용의 적정화'에 대한 분명한 근거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총론 일부에서 제시한 형식적인 원칙만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¹⁾.

물론, 어느 정도의 학습 분량을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학습량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그 부담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1) '교육 내용을 적정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교육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이론 연구와 함께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분석 및 합의가 요구된다.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안도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에 대하여 실증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사회적 요구나 교육 현장의 실제적 의견을 근거로 하여 국어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학습의 양에 대한 논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량의 문제는 국어과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동시에 비판적 관점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학습량의 문제를 교육과정의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문제로만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습의 내용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근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교과서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교과서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방법을 함께 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²⁾.

II. 국어과 학습량의 실태 분석

1. 실태 조사의 틀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 각 학교급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200개교 4개 학년(3, 4, 5, 6학년) 담당 교사 1명씩,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0개교에 교사 2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4년

2) 이 연구에서와 같은 실증적 자료와 내용 분석 등은 미흡하나마 앞으로 국어과의 학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월에서 6월까지였다.

설문의 내용은, 수업 시수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학습 분량이라고 생각하는지와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의 현재 교과서의 학습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학년의 교과서 단원 전체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어떤 단원이 학습량이 많은지에 대한 것이었다.

2.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지적한 내용은 학습량이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습량의 과다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³⁾

	매우 적다	적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전체
초등교사	5(.9)	24(4.3)	200(35.5)	269(47.7)	60(10.6)	564(100.0)
중등교사	3(1.0)	11(3.6)	56(18.1)	170(55.0)	69(22.3)	309(100.0)
고등교사	1(.3)	15(4.7)	74(23.4)	168(53.0)	58(18.3)	317(100.0)
계	9(0.8)	50(4.2)	330(27.7)	607(51.0)	187(15.7)	1,190(100.0)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47.7%,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50% 이상이 학습량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 1,190명 중에서 국어과의 학습량이 많거나 매우 많다고 인식한 교사들의 분포는 65%가 넘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3) 무응답을 통계 처리에는 포함하였으나, 특별히 그 수치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들은 국어과 학습량이 확실히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량이 많은 단원으로 어떤 단원을 들 수 있는지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64명, 중학교 309명, 고등학교 317명의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학습량 과다로 평가된 관련 단위들을 일차로 추출하였다. 그 중에서 각 학교급별로 교사 50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거나, 응답자의 10% 이상의 교사들이 지적한 단원을 재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

<표 3> 학습량 과다로 평가된 단위(초등학교)

학년·학기	교과서 - 관련 단위명	응답 수(%)
4-2	1. 생각의 열매를 모아 (2) 함께 의논하기	53(9.4), 50(8.9)
5-1	3. 삶의 향기 (2) 무지개를 찾아서	58(10.3), 42(7.4)
6-1	2. 알아가는 기쁨 (1) 정보의 바다	54(9.6), 46(8.2)
6-1	4. 의견을 모아서 (1) 말과 글에 담긴 생각	58(10.3), 45(8.0)
6-1	4. 의견을 모아서 (2) 헤아리고 살피며	55(9.8), 52(9.2)
6-2	2. 살며 배우며 (1) 여러 갈래의 길	54(9.6), 41(7.3)
6-2	3. 삶의 무늬 (2) 향기로운 이야기	53(9.4), 44(7.8)
6-2	4. 문제와 해결 (1) 생활 속에서	54(9.6), 43(7.6)
6-2	4. 문제와 해결 (2) 지혜를 모아	57(10.1), 45(8.0)
	이상 초등학교	564(100.0)

<표 4> 학습량 과다로 평가된 단위(중학교)

학년·학기	교과서 - 관련 단위명	응답 수(%)
7-1	국·5. 삶과 갈등 (1) 소설 동의보감	70(22.7), 8(31.7)
7-1	국·5. 삶과 갈등 (2) 육체미 소동	75(24.3), 6(27.8)
7-2	국·6. 문학과 독자 (1) 흰 종이 수업	67(21.7), 2(29.8)
7-2	국·6. 문학과 독자 (2) 숨 쉬는 영정	78(25.2), 6(24.6)
7-2	국·1. 능동적으로 읽기 (2) 먹어서 죽는다	77(24.9), 3(20.4)

- 4)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교과서 등의 구분을 특별히 하지 않고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답 수 분포에서 앞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대단원 전체에 대한 응답 분포이고 뒤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소단원 분포만 따로 제시한 것이다. 교사에 따라 대단원에만 응답한 경우도 있고 소단원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8-1	국-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3) 토끼전	57(18.4), 1(26.2)
8-1	국-4. 삶과 문학 (2) 기억 속의 들꽃	51(16.5), 2(23.3)
8-1	국-6. 작품 속의 말하는 이 (2) 사랑손님과 어머니	55(17.8), 6(21.4)
8-1	생국-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 국어의 음운	72(23.3), 5(17.8)
8-2	국-3. 문학의 표현 (2) 들판에서	53(17.2), 6(18.1)
8-2	국-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1) 국사 교과서 읽기	53(17.2), 0(16.2)
8-2	국-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2) 과학 교과서 읽기	53(17.2), 8(15.5)
8-2	생국-2. 낱말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 낱말형성법	63(20.4), 1(19.7)
9-1	국-2. 중심 내용 파악하기 (2) 현대 사회와 과학	57(18.4), 2(20.1)
9-1	국-3. 독서와 사회 (1)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	66(21.4), 7(18.4)
9-1	국-3. 독서와 사회 (2) 원미동 사람들	50(16.2), 0(22.7)
9-1	국-5. 읽기와 매체 활용 (2) 시집 가는 날	60(19.4), 3(17.2)
9-1	국-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1)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	38(12.3), 8(15.5)
9-2	국-4. 고전 문학의 감상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41(13.3), 5(17.8)
9-2	생국-2. 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56(18.1), 2(13.6)
9-2	생국-5. 품사의 종류 (2) 품사의 특징	54(17.5), 3(13.9)
이상 중학교		309(100.0)

<표 5> 학습량 과다로 평가된 단위(고등학교)

학년·학기	교과서 - 관련 단원명	응답 수(%)
10-상	국어(상)-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그 여자네 집	108(34.1), 120(37.9)
10-상	국어(상)-5. 능동적인 의사소통 (2) 구운몽	113(35.6), 136(42.9)
10-상	국어(상)-7. 생각하는 힘 (1) 장마	132(41.6), 115(36.3)
10-상	국어(상)-7. 생각하는 힘 (2) 기미 독립선언서	132(41.6), 125(39.4)

10-상	국어(상)-8. 언어와 세계 (2) 삼대	126(39.7), 118(37.2)
10-하	국어(하)-1. 국어가 걸어온 길 (1) 고대 국어	124(39.1), 99(31.2)
10-하	국어(하)-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 국어	113(35.6), 115(36.3)
10-하	국어(하)-1. 국어가 걸어온 길 (3) 근대 국어	125(39.4), 107(33.8)
10-하	국어(하)-5. 감동을 주는 언어 (1) 관동 별곡	67(21.1), 118(37.2)
이상 고등학교		317(100.0)

국어과에서 학습량의 문제가 심각한 단원으로, 초등학교 9개 단위, 중학교 21개 단위, 고등학교 9개 단원이 추출되었다(위의 <표 3, 4, 5> 참조).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넷째 마당'과 '6학년 2학기 넷째 마당',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1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2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3학년 1학기 3단원', 고등학교 '국어(상) 7단원', '국어(하) 1단원' 등은 관련 소단원 모두 학습량의 과다 문제를 보이고 있어 단위 전체가 학습량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 제시한 단위들이 응답 분포상으로 볼 때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여 이들 단원의 학습량 문제는 확실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은 실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학습량 과다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이어진다면, 학습량의 문제도 좀더 분석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다음 III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실태 조사에서 학습량 과다로 심각한 문제를 보인 단위들은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Ⅲ.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내용 분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추상성은 교과서에서의 학습 목표, 학습 활동 등으로 구현되면서 구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심층적인 내용 분석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 내용 분석의 기준

본 연구의 주된 대상 개념인 학습량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의 양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학습하느냐'라는 '학습의 내용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 교육학적으로 논의된 바에 따른 학습의 양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의 양(quantity)'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교육학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 교과 내용의 양을 구분하는 방법인 '단원 수 및 주제 수, 제재 수, 내용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개념, 원리·법칙, 이론의 수, 그리고 교과서의 면 수'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교육과정 내용 항목에 대한 고려가 없다. 교과서가 단순히 '교육 내용을 담은 교재'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담은 매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학습량에 대해서,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 단원을 추출하여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내용 항목의 성격 및 수, 관련 교과서의 분량, 학습 활동의 성격 및 수, 텍스트의 길이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 내용 분석의 결과

내용 분석의 대상 단원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넷째 마당', '중학교 1학년 1학기 5단원', '고등학교 (상) 7단원'의 세 개 단원이다. 이들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든 이유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학교급별로 각각 살펴보기 위함이며, 이와 동시에 실태 조사에서 학습량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단원을 예시로 들어 학습량 과다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밝히기 위함이다.

1) 초등학교 학습량 분석

초등학교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분석 대상은 '6학년 2학기 넷째 마당'이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를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와 '읽기' 교과서 두 권으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6>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말·듣·쓰)

교육 과정 내용 항목	관련 단원	대단원 목표	차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활동
·듣기-(3)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에 파악하며 듣 는다. ·말하기-(4) 문제와 해결의 짜임 으로 내용을 전개하 여 말한다.	말듣쓰 6-2 넷째 마당	·문 제와 해결의 짜 임으로 내 용을 전개 하여 표현 할 수 있 다.	1	대단원 안내 1. 생활 속에서	·단원 학습 내용 확인하기 ·내용 읽고 확인하기(3개)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글쓰는 방법 정리하기 ·문제 전달 내용 생각하기 ·문제를 친구들과 말하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생각해 보기 ·문제 해결 문구 작성하기 ·내용 읽고 확인하기(2개)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말하기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글쓰기 ·쓴 글 발표하기
			2	1. 생활 속에서	
			3	1. 생활 속에서	

·말하기-(6) 여러 가지 말하기 규칙을 지키며 말 하는 태도를 지닌 다. ·쓰기-(4) 문제와 해결의 짜 임으로 내용을 전 개하여 글을 쓴다. ·국어지식-(4) 문장과 문장 사이 의 연결 관계를 인 다.	문제와 해결		4	2. 지혜를 모아	◦내용 듣고 확인하기(2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5~6	2. 지혜를 모아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글쓰기 ◦글읽고 문제 확인하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기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글쓰기 ◦글씨 바르게 쓰기
			7	되돌아 보기	◦내용 생성하여 정리하기 ◦쓸 내용 정리하기 ◦문제와 해결 짜임으로 글쓰기 ◦쓴 글 읽고 평가하기
			8~9	더 나아가기	◦두 편의 글과 관련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글쓰기(쓰기, 토의활동 포함)

〈표 7〉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읽기)

교육 과정 내용 항목	관련 단원	대단원 목표	차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활동
·읽기-(5) 문제 해결 방안 의 적절성을 판 단한다.	읽기 6-2 넷째 마당 문제 와 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1	대단원 안내 1. 생활 속 에서	◦단원 학습 내용 확인하기 ◦문제와 해결의 짜임에 대하여 알기 ◦글 읽고 내용 확인하기(2개) ◦문제와 해결 짜임으로 된 글 특성 말하기
			2~3	1. 생활 속 에서	◦글을 읽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하기 ◦글을 읽고 내용 확인하기(3개) ◦문제 해결 방안 정리하기 ◦정리한 내용 토의하기
			4	2. 지혜를 모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 알기
			5~6	2. 지혜를 모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생각하면서 글 읽기 ◦글을 읽고 내용 확인하기(2개) ◦해결 방안 정리하고 의견 적기 ◦문제 해결 방안 토의하기

			7	되돌아 보기	◦ 해결 방안 적절성 판단하며 글 읽기 ◦ 문제와 해결 방안 정리하기 ◦ 해결 방안의 적절성 의견 나누기 ◦ 자기 평가하기
			8~9	더 나아가기	◦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된 두 편의 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절성 판단하기 (내용 확인, 정리, 토의 활동 포함)

가) 분량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의 경우 23쪽 분량으로서 다른 단위보다 물리적으로 분량이 특별히 많다고 볼 수는 없다⁶⁾. 그러나 말하고 듣고 쓴다는 학습 내용의 성격상 실제적인 활동이 얼마나 많냐, 학습 내용의 수준이 어떠한지 등이 학습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의 표에 정리한 바와 내용 분석의 기준으로 학습 활동의 개수와 그 성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읽기 교과서의 경우에도 35쪽 분량으로 다른 단위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없다⁷⁾. 그렇지만, 학습 목표에서 담고 있는 학습 주제 및 명제, 개념 등을 살펴보면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학습 목표

두 교과서 모두 '문제와 해결'이라는 사태를 학습 목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개념이 가지는 추상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를 설명하는 물

6) 참고로 6학년 2학기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의 단위별 분량은, 첫째 마당 p. 4~33(29쪽 분량), 둘째 마당 p. 36~57(21쪽 분량), 셋째 마당 p. 60~93(33쪽 분량), 넷째 마당 p. 96~119(23쪽 분량), 다섯째 마당 p. 122~141(19쪽 분량)이다.

7) 6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의 단위별 분량은, 첫째 마당 4~43쪽(39쪽 분량), 둘째 마당 46~99쪽((53쪽 분량), 셋째 마당 102~145쪽(43쪽 분량), 넷째 마당 148~183쪽(35쪽 분량), 다섯째 마당 186~217쪽(31쪽 분량)이다.

리적,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결국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습 목표가 가진 개념의 난이도가 학습량 부담 요인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이 단원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내용 항목은 위의 표에 분석한 바와 같이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에서 5개의 교육과정 내용 항목, ‘읽기’ 교과서에서 1개의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각 교과서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에는 관련되는 교육과정 내용 항목이 5개이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은 말하기-(4) 항목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 대단원 목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아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서 보이는 차이점으로는,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것을 교과서에서는 쓰기와 말하기 모두를 아우르는 활동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교과서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글을 쓰는 방법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보충·심화 학습에서는, 주변이나 글에서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는 학습까지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는 친구들과의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하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 중의 하나인 말하기-(6)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단원은 말하기의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된 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와 해결의 짜임을 가진 글을 쓰기 위해서 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말하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본 단원을 말하기-(6) 항목 관련 단원으로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6) 항목의 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반영되어 있는 학습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다.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토의를 할 때는~'라는 형태로 토의에서 지켜야 할 말하기 규칙을 짚어 주는 정도밖에는 지도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단원이 굳이 말하기 (6) 항목과 특별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읽기 교과서의 경우, 이 단원은 읽기-(5) 항목이 관련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단원은 관련 대단원 목표 자체가 교육 과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단원의 학습 내용 요소 역시 읽기-(5) 항목의 내용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된 글의 특징을 알아보고, 글을 읽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는 학습 활동,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읽기 교과서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에 학습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절성'이란 어휘가 가진 추상성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볼 때 학습 인지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개념 사용으로 학습의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종합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넷째 마당은 물리적 분량,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및 학습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습의 부담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중학교 학습량 분석

중학교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분석 대상은 '1학년 1학기 국어 5단원'이다. 해당 단원의 전반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교육 과정 내용 항목	관련 단위	대단원 목표	차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활동
○문학-(4)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국어 5. 삶과 갈등	○ 작품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 ○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총6차시	단원의 길잡이	○'갈등'의 개념 이해하기 ○'단원의 길잡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 대단원의 학습 방법 이해하기
				(1) 소설 동의보감	○허준의 결정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 ○허준의 마음 속 갈등을 정리해 보기 ○'소설 동의보감'을 읽고 느낀 점이나 주인공 허준에서 보내는 편지 쓰기
				(2) 육체미 소동	○이 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기 ○'동민'이 갈등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기 등 ○'육체미 소동'을 드라마로 만들 때, 등장 인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해 보기
				보충·심화	○보충 활동- 인물의 마음 상태 알기 외 1개 ○심화 활동-인물의 관계 및 갈등 파악하기 외 3개

가) 분량 및 시간

이 단원은 물리적 분량으로 볼 때 63쪽(p.147~210)을 차지한다. 이는 다른 단원의 쪽수와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이다. 같은 문학 영역을 다룬 7단원을 보면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총 47쪽인데, 이를 볼 때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63쪽을 차지하는 5단원은 분량이 매우 많은 것이다. 또한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학습 시간이다. 이 단원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분량만 보았을 때도 절대적으로 많지만, 여기에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즉, 63쪽의 분량에 대해서 교육과정

지도서 계획상 총 6차시를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학습량의 과다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시, 다른 단원과 비교해 볼 때 위에서 예를 든 7단원의 경우, 47쪽의 분량을 총 9차시에 나누어서 지도하게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이 단원은 7학년 문학 영역 (4)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를 반영한 단원인데, '작품 속에 드러난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희곡이나 소설 등 서사 문학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활동으로 '희곡이나 소설에서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한다.'와 심화 활동으로 '희곡이나 소설에서 갈등의 해결 과정이 달라진다면 이에 따라 인물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여 말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와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의 2개의 학습 목표로 구현되어 있다. 1개의 교육과정 내용 항목이 2개의 학습 목표로 구현되어 있어, 학습량을 특별히 가중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학습 활동

(1) 소단원은 2개의 내용 학습, 2개의 목표 학습, 1개의 적용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2) 소단원은 4개의 내용 학습, 3개의 목표 학습, 2개의 적용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갈등과 인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 소단원의 적용 학습에서 제시하는 활동은 실제 공연을 해 보는 활동으로 차시 등을 고려할 때 학습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충 활동과 심화 활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 2개와 4개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습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원의 학습 시간은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총 6차시 중에서 1시간의 학습 시간으로 이 활동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 텍스트의 내용 수준

텍스트와 관련하여 내용 수준을 고려하면, (1) 소단원은 소설, (2) 소단원은 희곡으로서 특별히 복잡한 구조의 텍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1) 소단원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2) 소단원에서는 텍스트 길이가 절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모두 읽어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학습량이 과다한 것이며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마) 종합

중학교 1학년 1학기 5단원은 분량 및 시간,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 텍스트의 내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습량이 과다하다고 분석된다.

3) 고등학교 학습량 분석

고등학교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분석 대상은 '국어 (상) 7단원'이다.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전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교육 과정 내용 항목	관련 단원	대단원 목표	차시	소단원명	소단원 학습 활동
○말하기-(2)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 하여 말한다. ○쓰기-(2)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 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국어(상) 7. 생각하 는 힘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 황에 적절한 내 용이 중요함을 안다. ○내용을 생성 하는 다양한 방 법을 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말하 거나 글을 쓸 수 있다.	1	단원의 길잡이 준비 학습	○상황에 어긋난 말하기 경험 발표하 기 ○상황에 맞게 소개하기
			2~3	(1) 장마	○서사적 전개 상황을 등장 인물 입장 에서 살펴보기 ○상황 판단 후 등장 인물과 대화 니 누기 ○등장 인물 대사의 의미와 역할 살펴 보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메모한 후 등 장 인물에게 말하기 등
			4~6	(2) 기미 독립 선언서	○선언문 생성을 위한 준비 과정 알이 보기 ○선언문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선택하는 종류의 글 생성해 보기 등
			7	단원의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하기 ○학습 활동 점검하기
			8	보충 심화	○말로 하는 의사 소통과 통찰의 의사 소통 비교하기 ○상황과 의사 소통의 관계 파악하기 와 연결짓기 ○가정된 상황의 실정과 대화 내용 생 성하기 ○상황을 보는 필자의 인식 차이 알기

가) 분량

이 단원은 53쪽(254~307)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1단원(총 53쪽)과 3단원(총 52쪽)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원보다 많은 분량이다. 즉, 독해해야 할 내용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이 단원은 10학년 말하기-(4)와 쓰기-(2)를 반영한 단원이다. 이 교

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을 안다.’,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의 3개의 학습 목표로 구현되어 있다. 한 단원에서 3개의 학습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 부담이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단원의 내용을 교육과정 항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쓰기-(2) 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단원 (2)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교과서, p.294). 여기에서 문제는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 단원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 생성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원의 내용과 관련지어 학습하기에는 학습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 단원의 성격은 말하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에 해당하는데, 소단원의 내용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소단원에서는 ‘상황 파악의 중요성, 상황 파악할 때 고려 사항’ 등 상황에, (2) 소단원에서는 ‘내용 생성을 위한 준비, 내용 생성의 방법’ 등 내용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분석에 의한 접근보다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해 주고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을 하는 방법이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며, 학습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학습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학습 활동 및 시간

(1) 소단원에서는 혼자하기 활동 6개, 함께하기 활동 1개가 있다. (2) 소단원에서는 혼자하기 활동 5개, 함께하기 활동 6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 소단원의 활동에서는 함께하거나 혼자하기 활동이 많은 편이고, ‘조선 독립’의 근거나 주장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학습의 수준 또한 어려운 편이다. 그리고 보충 학습에서는 혼자하기 활동 2개, 함께하기 활동 1개, 심화 학습에서는 혼자하기 활동 2개, 함께하기 활동 3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단원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계획한 지

도서에 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 소단원을 2시간에, (2) 소단원을 3시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심화 활동은 1시간에 학습하여야 하는 총 8차시의 학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에서 학습 활동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질적 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어진 각 차시에 이러한 활동을 모두 내실 있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종합

고등학교 국어 (상) 7단원은 물리적인 분량, 교육과정 관련 학습 목표 및 단원 구성 내용, 학습 활동 및 학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습량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IV. 국어과 학습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국어과 학습량에 대한 실태 조사와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과 학습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량 과다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의 중복,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의 과다를 한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사항인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 내용 항목이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등의 여러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는, 한 단원에 다수의 교육과정 내용 항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거의 동일한 학습 목표 및 내용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교과서에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습 활동의 과다와 활동 수준의 난이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활동의 수도 많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

할 때 내용 수준도 어렵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학습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차시와 학습 내용 간의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해당 단원의 물리적 분량이 총 차시에 비하여 볼 때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⁸⁾. 본고에서 분석한 바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의 길이를 보면 주어진 차시의 수업 시간에 감당하기에는 많은 분량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실태 조사 및 내용 분석 결과를 통하여 추출할 수 있었던 국어과 학습량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원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어과의 학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내용 반영도를 엄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분책된 교과서에 동일 학습 목표의 연속적 제시로 인한 교육 내용의 중복, 유사한 내용의 지문 반복 등 학습량의 과다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 함양을 고려한 교과서 분책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명확한 학습 목표를 최소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학습량의 문제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학습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사에게 이 역할을 요구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탄력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할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⁹⁾.

8) 사실, 학습자 수준에 따른 가독 능력의 차이, 또한 그에 따른 텍스트 분량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도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텍스트 분량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9)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교사의 몫으로만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닐 것이다.

둘째, 필수·공통 내용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 시부터 필수·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제시하여 내용 항목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즉, 학습량이 많다고 비판되는 상황에서, 교육 내용 설정의 근간이 되는 현 교육과정 또는 차기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 수를 최소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현장 활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어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인데,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모두 다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학습량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학습 목표에 대하여 교사 및 전문가가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단위이나 내용을 빼거나 또는 그 반대로 더 부각해야 할 내용은 보충 자료를 추가하여 지도하는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교수 체제의 개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마무리

국어과 학습량의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판단 하는 경우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교사들은 학습량을 판단할 때 그 내용이 되는 개념을 대부분 '교과서의 학습 목표나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반면, 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으로 본다(송현정, 2004: 120). 따라서 '학습량이 많다, 적다' 등의 견해는 이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개념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습량의 양적·질적 내용 분석을 할 때 교육과정 내용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사실상, 같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학습량의 부담이 없이 짧은 시간 내에

학습이 가능한 반면, 성취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학습량의 과다와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량이라는 것이 교사의 교수 능력이나 학생의 학습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념이 불분명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상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학습량의 적정화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상, 그리고 공교육의 체제상 '적정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2. 17. 투고되었으며, 2005.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재춘(2003), “국가 교육과정 개정 담론의 비교 분석(I) : 제4차에서 제7차에 걸친 ‘교육 내용 적정화’ 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연구』 23(2), pp. 105~122.
- 김주훈·이주섭·최승현·강대현·곽영순·유정애·양종모·최원윤·김영애(2002),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RRC 2002-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영목·이삼형·윤여탁·허천행(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중학교 국어과』, 연구보고 RR 92-13-1, 한국교육개발원.
- 성경희 외(2003),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I)-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총론)-』, 연구보고 RRC 20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황희중·이은정(2001),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국어-』, 연구보고 RRE 2001-5-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현정(2004),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C-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미경(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 국어,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교육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학회 2004학년도 학술 세미나 자료집, pp. 90~95.
- 이경섭(1999), 『교육과정 쟁점 연구』, 교육과학사.
- 이인제 외(2002),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종합-』, 연구보고 RRC 2002-1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구향·이재기·민병곤·정민주(2003),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II)-국어-』, 연구보고 RRE 2003-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후조(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방안 : 국어,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학회, 2004학년도 학술 세미나 자료집, pp. 48~81.

〈초록〉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의 학습량 분석 연구

송헌정

본 논문은 국어과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국어과 학습량의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국어과 학습량의 문제를 실증적·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 방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내용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실태 분석 결과, 국어과에서 학습량의 문제가 심각한 단위으로는 초등학교 9개 단위, 중학교 21개 단위, 고등학교 9개 단위를 추출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분량(쪽수), 교육과정 내용 항목 관련 학습 목표, 학습 활동, 학습 시간, 텍스트 내용 수준 등의 복합적 부담 요인을 밝혔다.

이러한 실증적·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과 학습량 과다의 원인을, 학습 목표의 중복, 교육과정 내용 항목의 반복적 반영, 학습 활동의 과다, 학습 활동 수준의 난도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학습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내용 반영도의 고려, 필수·공통 내용 기준의 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량

〈Abstract〉

**Analysis of the Contents' Quantity for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Textbooks**

Song, Hy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about contents' quant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ew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To satisfy the purpose of the study, it conducted 1) a nationwide questionnaire to get opinions from teachers. 2) the analysis of the 7th Nation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section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current problems of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second chapter analyses the outcome that we would conduct a questionnaire about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Concretely, we analyzed out 9 units of the primary, 21 units of the middle and 9 units of the high schools textbooks. The third chapter analyses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contents' quantity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Concretely, we analyzed out measure, curriculum contents, goals, activities, time, texts' difficulty and so on. The four chapter proposed some suggestions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the curriculum & textbooks. The five chapter described finish of this study.

【Key word】 curriculum, textbooks, contents' quantity